

# \*\*\*\* 아파트 실내디자인 다양화를 위한 거주자 선호에 관한 연구

- 실내이미지 및 실내마감재 특성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Residents' Preference for the Diversity of Interior Design in Apartment Houses

- Focused on Interior Images and Finishing Materials -

오찬옥\* / Oh, Chan-Ohk      박수빈\*\* / Park, Soo-Been  
김석태\*\*\* / Kim, Suk-Tae      양세화\*\*\*\* / Yang, Se-Hwa

### Abstract

The apartment house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housing types in Korea. However, it has not met the diverse and individualized needs of their residents. This study was intended to identify the residents' preference of interior design in apartment houses and suggest the guidelines for the diversity of interior design in apartments. The subjects were 412 apartment residents who lived in Haeundae, Busan. They were asked about their preference for interior images of each room and finishing materials.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1) The apartment interior images were composed of nine main factors. 2) The residents preferred to 'practical' interior image in apartment and different interior images for each room. 3) The residents preferred interior images were different by their housing sizes and space organization types. 4) The residents preferred to different finishing materials for each room..

키워드 : 실내이미지, 실내디자인 선호, 거주자 선호, 아파트 규모, 아파트 평면유형

## 1. 서론

### 1.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우리나라의 아파트는 경제적인 급성장 및 인구의 도시집중에 따른 도시 주택의 양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었다. 1960년대 초반 마포아파트 단지의 건설(1962-1964)을 시작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대한주택공사와 민영 건설업체의 본격적인 아파트 건설 참여로 아파트의 공급이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아파트는 고밀도 주거형식으로 택지가 부족한 우리나라의 형편에 적합한 주택유형일 뿐 아니라, 중앙집중식 난방과 화장실, 주방 등 설비의 고급화로 주거생활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1980년대에는 대한주택공사가 주거의 질적 개선을 건설목표로 설정

하였고<sup>1)</sup> 아파트 현상설계가 보편화되었으며, 1990년대에는 주택 200만호 건설과 신도시 개발, 그리고 미분양 아파트 발생에 따른 아파트의 질적 변화에 대한 각성 대한 각성 등 아파트는 양적·질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점유율과 선호도 면에서는 단독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급감한 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급증함으로써<sup>2)</sup> 대표적인 도시주택유형으로 자리잡고 있다.

한편, 아파트는 단독주택과는 달리 공동주택으로서의 경제성과 효율성에 치중함으로써 공간구성 및 실내디자인의 획일성<sup>3)</sup>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급격한 경제성장

1) 국토개발연구원, 80년대 주택정책의 방향, 1979.  
2) 전체 주택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1970년 0.8%(3만 3천 호)에서 2000년에는 47.7%(523만호)로 158배 증가하였고, 특히, 도시특성이 강한 동부의 주택재고 중 아파트의 비율은 1970년에 2.25%에서 2000년에 57.5%로 급증하였다. 도시거주자가 원하는 주택형태로서 단독주택은 1987년 72.3 %에서 1997년 55.2 %, 2001년 50.8%로 점차 감소한 반면, 아파트는 24.8 %에서 40.8 %, 43.9 %로 증가하였다(통계청, <http://www.nso.go.kr>, 한국의 사회지표 1997, 2002).  
3) 김수암 외, 집합주택 단위평면유형의 고정화 현상에 관한 연구(I), 대한건축학회논문집 8(4), 1992. 4; 박용환, 집합주택 주호공간의 가변성에 관한 연구(I)-가변성의 요구와 그 요인의 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3), 1986. 6.

\* 정회원, 인제대학교 디자인대학 부교수  
\*\* 정회원, 인제대학교 DID연구소 전임연구원  
\*\*\* 정회원, 인제대학교 디자인대학 전임강사  
\*\*\*\* 정회원, 울산대학교 생활환경대학 교수  
\*\*\*\*\* 이 연구는 학술진흥재단 중점연구 지원사업 결과의 일부임.

생활수준 향상은 주거공간에 자신의 가치와 취향을 표현하고자 하는 요구를 증대시켰고, 획일화된 아파트 실내디자인에 반한 개별적이고 차별화된 디자인에 대한 요구는 아파트의 개조나 수선으로 표현되었다. 이는 수납공간의 증설에서부터 벽·바닥 등의 마감재 교체나 주방이나 화장실 설비의 고급화 등, 수선 이라기보다는 입주시점에서 재시공(remodeling)하는 현상으로 확대됨으로써,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자원의 낭비 및 폐자재 처리의 문제까지 발생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불필요한 아파트 개조나 수선, 재시공을 유발하는 아파트 실내디자인의 획일성을 지양하고 차별화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아파트 실내디자인에 대한 거주자의 선호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아파트 실내디자인의 다양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는 아파트 계획이나 분양단계에서 거주자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아파트 주거환경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아파트 실내디자인의 다양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아파트 실내디자인에 대한 거주자 선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은 부산의 해운대 신시가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로 하였다. 주부를 대상으로 한 것은 주택 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가장 많으며 가족의 요구사항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운대 신시가지는 부산시에 위치하며 1992년 10월 이후에 착공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포함하고 있는, 도시주택 유형으로서의 아파트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조사에 앞서 조사대상지역의 아파트 단위평면을 전용면적에 따라 A(60㎡), B(85㎡), C(102㎡), D(135㎡) 규모대역으로 분류하고, 다시 A(A1, A2)와 B(B1, B2) 규모대역은 침실 수와 전면 실배치 방식에 따라 각각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모두 6가지 평면유형으로 유형화하였다(A1, A2, B1, B2, C, D). 이 6가지 평면유형에 따라 표본이 고르게 분포하도록 할당표집법<sup>4)</sup>을 이용하여 표집하였다.

조사는 조사도구인 질문지 내용을 검증·보완하기 위한 예비조사(2002. 12. 16.~12. 31)와 실증분석을 위한 본조사(2003. 1. 15~2. 15)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조사도구는 아파트 단위주거내 각 공간의 실내디자인 이미지에 대한 선호와 각 실의 마감재에 대한 선호를 묻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자료수집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도움을 받아 10여명의 혼련된 조사원이 6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총 436부를 회수하였으며, 응답이 불

4) 연구대상을 범주(category)화하고 각 집단에 따라 표본 크기를 결정하여 임의 또는 판단표집법에 의해 표집하는 방법

성실하거나 불충분한 설문지를 제외한 412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 3. 아파트 실내디자인과 거주자 선호

아파트 계획은 주택부족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주택정책에 힘입어 경제성과 효율성 중심의 양적 공급에 치중하여 이루어져 왔다. 1980년대 이후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규모위주의 획일적인 디자인은 거주자들의 다양한 생활 특성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다. 반면, 인간의 요구는 기본적인 욕구에서 보다 나은 단계로 변화·발전해 나감으로써, 어느 정도의 주거수준이 충족되면 기본적으로 획일적인 것으로부터 개성화·다양화를 요구하게 된다<sup>5)</sup>.

요구란 직접 측정할 수 없으며, 환경에 대한 인간의 요구는 환경에 대한 직접적·간접적 반응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다. 아파트 실내디자인에 대한 다양한 요구는 거주자의 아파트 실내디자인 선호를 통하여 구체화할 수 있으며, 김선희(1997), 박혜숙·윤정숙(2001), 이연숙·홍미혜(1998), 한영호 등(2002)은 실내 이미지를 통하여 실내디자인 선호를 파악하였다<sup>6)</sup>

실내이미지는 실내디자인을 통해 나타나는 내부 공간의 이미지로서 실내디자인 결과를 통해 추구해야 할 디자인의 방향이다<sup>7)</sup>. 따라서, 실내이미지 선호는 실내디자인에 대한 거주자의 요구를 파악할 뿐 아니라 이를 실제 디자인에 적용하기 위한 기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실내이미지 선호의 측정은 사진이나 컴퓨터 모델링(이연숙·홍미혜, 1998) 등 시각적 도구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형용사로 구성된 의미분별척도(김선희, 1997; 박혜숙·윤정숙, 2001; 한영호 외, 2002)를 통해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의미분별척도는 응답자의 상상력에 의존함으로써, 시각적 도구가 가지는 표현방식의 한계에 대하여 보다 다양한 요구와 디자인의 방향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실내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실내이미지 구성요소는 실내마감재, 색채, 가구, 조명, 실내공간에서 사용되는 장식 및 액세서리로 구분할 수 있다(김선희, 1997). 이 중 실내마감재는 색채와 재질을 포함하는 요소이며 조명이나 가구는 달리 한번 선택하면 수정하는데 많은 노력이 소요되므로 실내이미지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실제로 거주자들이 실내이미지를 좌우하는 요소로서 실내마감재의 종류와 수준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sup>8)</sup>.

5) 服部峯生 外, 住要求から見た獨立住宅類型化に関する研究, 住宅建築研究所, 新住宅普及會, 1979.

6) 김선희(1997)는 실내이미지와 함께 색채 선호를, 박혜숙·윤정숙(2001)은 실내구성요소(바닥, 벽, 일반문, 소파, 천장조명기구, 색채이미지)에 대한 선호를 파악하였다.

7) 김선희, 아파트 마감방식 다양화를 위한 실내디자인 태도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p.38.

실내이미지는 아파트 규모(김선희, 1997), 소득(김미희·문화정, 2001; 김선희, 1997), 연령(김미희·문화정, 2001; 김선희, 1997), 그리고 생활양식 특성(박영순, 1994; 박혜숙·윤정숙, 2001)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실내이미지가 공간의 특성이라는 점에서 아파트 규모나 아파트의 공간구성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이 실제적인 적용을 위해서도 유용할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 규모와 공간구성방식 특성에 따른 실내이미지 및 실내마감재에 대한 거주자 선호를 분석하였다.

## 4. 분석결과

### 4.1. 조사대상특성

조사대상 아파트는 부산시에서 1992년 10월 21일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을 발표한 후 대한주택공사 및 각 민간업체를 통해 분양 및 시공되었다. 1994년 후반에서 1996년에 입주한 가구가 가장 많으며, 최근까지 분양 및 시공이 지속되고 있는 곳으로 도시주택유형으로서의 아파트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 (1) 조사대상 아파트의 특성

아파트의 규모는 주택청약예금, 주택분양가격 규제제도, 주택자금 지원정책과 같은 주택공급제도의 영향으로 전용면적 60㎡, 85㎡, 102㎡, 135㎡ 등 일정 규모로 제한되어 공급되고 있다<sup>9)</sup>. 이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지역의 20개 아파트 단지의 단위 주택평면을 분석한 결과, 전용면적 60㎡, 85㎡, 135㎡의 비율이 높았다. 전용면적 85㎡과 전용면적 135㎡ 사이에는 102㎡, 112㎡, 115㎡ 등 몇 가지 평면유형이 있으나 분포율이 매우 낮았다. 공급비율이 높은 전용면적 60㎡과 85㎡의 단위주거 공간구성특성을 보면, 60㎡은 침실 수에 따라 3침실형(A1 유형)과 2

침실형(A2 유형)으로, 85㎡은 전면 실배치 방식에 따라 전면 2실형(B1 유형)과 전면 3실형(B2 유형)으로 뚜렷하게 구분되었다. 전용면적 102㎡(C 유형)은 3침실형과 4침실형이고, 전용면적 135㎡(D 유형)은 모두 4침실형으로 주방과 식사공간, 주침실과 부부욕실의 연결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공급비율이 낮고 규칙성이 존재하지 않아 공간구성방식 특성에 따른 구분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 아파트를 전용면적과 주요 실의 배치방식에 따라 A1, A2, B1, B2, C, D의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그림 1>.



<그림 1> 조사대상 아파트 평면의 유형

#### (2) 조사대상 가구의 특성

조사대상 가구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장 및 부인의 연령, 장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한 가족주기, 가족수 등 가족구성특성과, 가장과 부인의 학력 및 직업, 월평균소득 등 사회적 특성을 분석하였다<표 1>. 이 때, 각 가구의 특성을 아파트 평면유형에 따라 분석하여 가구특성에 따라 어떠한 아파트 규모와 실배치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A1 유형과 A2 유형은 같은 주택규모임에도 가장과 부인연령, 가족주기 특성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A1 유형의 가장연령은 36-40세(30가구, 26.3%), 41-45세(36가구, 31.6%), 부인연령은 36-40세(47가구, 41.2%), 그리고 초등교육기(40가구, 36.4%)와 중고등교육기(31가구, 28.2%)인 가구의 비율이 높았다. 이와 비교하여 A2 유형의 가장연령은 36-40세(23가구, 37.1%)와 41-45세(19가구, 30.6%)인 가구가 높을 뿐 아니라 35세 이하(10가구, 16%)인 가구의 비율이 다른 유형보다 높았다. 마찬가지로 주부연령은 35세 이하(26가구, 40.0%)인 가구의 비율이 다른 유형과 비교하여 매우 높고 가족주기는 미취학기(19가구, 30.6%)와 초등교육기(24가구, 38.7%)인 가구의 비율이 높았다. A1 유형과 A2 유형 모두 가장과 부인의 학력이 다른 유형과 비교하여 고졸이하인 가구의 비율이 높고 대졸이상인 가구의 비율이 낮았으며 월평균소득도 300만원 이하인 가구의 비

8) 김선희, ibid, p.48.

9) 1977년 8월 제정된 '국민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규칙'은 공공부문이 공급하는 국민주택에 대하여 주택규모에 따라 일정한 국민주택청약부금 불입회수와 금액에 의해 분양 우선 순위를 주도록 하였다(대한주택공사, 1992, p.484). '국민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규칙'은 1978년 5월 10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대체된 이후 청약예금 가입기간에 의한 분양 우선 순위나 예치금액 등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지만, 주택규모별로 청약예금가입자의 예금액에 따라 주택분양 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골격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약예금의 기준이 되는 전용면적 85㎡, 102㎡, 135㎡와 청약예금과는 관계가 없으나 국민주택 기금을 지원 받는 국민주택규모 기준이 당초 85㎡ 이하에서 1986년부터는 60㎡ 이하로 변경되면서(대한주택공사, 1992; p.690) 전용면적 60㎡이 주택규모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 청약가능 전용면적(2003년 현재)

(단위:만원)

	85㎡(25.7평)이하	102㎡(30.8평)이하	102-135㎡이하	135㎡(40.8평)초과
서울·부산	300	600	1,000	1,500
기타광역시	250	400	700	1,000
기타시·군	200	300	400	500
비고	해당평형 및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초차아기근	해당평형 및 85㎡ 이하 민영주택초차아기근	해당평형만 청약가능	해당평형만 청약가능

율이 높아 다른 규모대역과 비교하여 월평균소득이 낮았다. 가장의 직업은 사무직(33가구, 30.0%)의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자영업(24가구, 21.8%)과 서비스·생산직(23가구, 20.9%)의 비율이 높았다.

B1 유형과 B2 유형은 유사한 가족특성을 보여 가장연령과 주부연령이 36-50세까지 고르게 분포하고 초등교육기(B1 유형: 16가구, 28.6%; B2 유형: 11가구, 21.6%)와 중등교육기(B1 유형: 22가구, 39.3%; B2 유형: 18가구, 35.3%)인 가구의 비율이 높았다. 월평균소득은 A 규모대역보다 높아 200-300만원 미만(B1 유형: 14가구, 25.0%; B2 유형: 17가구, 33.3%)인 가구와

300-400미만(B1 유형: 15가구, 26.8%; B2 유형: 20가구, 39.2%)인 가구의 비율이 높고 가장의 직업은 다른 규모와 비교하여 관리직(B1 유형: 23가구, 41.8%; B2 유형: 20가구, 39.2%)인 가구의 비율이 높았다.

C 유형과 D 유형은 가장과 주부의 연령, 가족주기는 유사한 분포를 보이는 반면, 가족수와 월평균소득의 분포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가장연령은 46세 이상, 주부연령은 41세 이상인 가구의 비율이 높고 가족주기는 성인기 이후(C 유형: 26가구, 55.3%; D 유형: 41가구, 60.3%)인 가구의 비율이 높았다. 가족수는 다른 유형과 비교하여 D 유형이 3인 이하(11가구, 15.9%)인 가구의 비율이 매우 낮았고 월평균소득은 C 유형은 200-300만원(18가구, 36.7%)과 300-400만원(12가구, 24.5%)인 가구의 비율이 높은 반면 D 유형은 400-500만원(17가구, 25.0%)과 500만원 이상(25가구, 36.7%)인 가구의 비율이 높았다. 가장의 직업도 C 유형은 전문직(16가구, 32.7%)이, D 유형은 전문직(15가구, 23.1%)과 관리직(28가구, 43.1%)의 비율이 다른 유형과 비교하여 높았다.

이상으로 가장과 부인의 연령, 가족주기, 가족수의 가구구성 특성은 아파트 규모 및 침실 수에 따라 차이가 있고 가장의 학력과 직업, 월평균소득과 같은 가족의 사회적 특성은 아파트 규모에 따라 차이가 큰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가족구성원의 연령과 가족주기가 높아지고, 가족수가 많아질수록 큰 규모의 아파트와 같은 아파트 규모 내에서도 침실수가 많은 아파트를 선택하고, 아파트 규모를 결정하는데 월평균소득이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하였다.

## 4.2. 실내이미지에 대한 선호

거주자는 각 공간의 기능과 의미에 따른 실내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실내이미지를 바탕으로 각 공간을 물리적 형태로 구체화하고자 한다. 각 공간에 대한 거주자의 선호 실내이미지는 거주자 요구에 대응하는 실내디자인을 위한 기초가 된다. 거주자가 선호하는 실내이미지를 파악하기 위해 실내이미지를 표현하는 대표 형용사를 추출하고, 실내이미지 구성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실내이미지 구성요인에 따른 각 공간의 실내이미지를 분석하였다.

### (1) 실내이미지 구성 요인

실내이미지 구성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실내디자인 전공 교수, 연구원,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을 통해 실내디자인 관련 학술논문과 전문잡지에서 실내이미지를 표현하는 총 39개의 대표 형용사를 추출하였다<sup>10)</sup>. 추출된 형용사를 5

10) 학술논문과 전문잡지에서 나타난 실내디자인의 주요 트렌드별 Modern-10개, Minimal-4개, Natural-11개, Romantic-7개, Romantic Luxury-3개, Oriental-10개, Classic-6개, Clear Light-10개, 기타-14개의 총 75개 형용사를 추출하였다. 이 중 다중적인 의미를 내포하거나

<표 1> 아파트 평면유형에 따른 거주가구 특성 (가구수%)

아파트평면유형		A <sub>1</sub>	A <sub>2</sub>	B <sub>1</sub>	B <sub>2</sub>	C	D	전체
가장 연령	35세이하	10(8.8)	10(16.1)	4(7.1)	5(9.8)	1(2.0)	1(1.5)	31(7.7)
	36-40세	30(26.3)	23(37.1)	9(16.1)	11(21.6)	7(14.0)	2(2.9)	81(20.4)
	41-45세	36(31.6)	19(30.6)	19(33.9)	10(19.6)	5(10.0)	10(14.7)	99(24.7)
	46-50세	21(18.4)	7(11.3)	14(25.0)	17(33.3)	15(30.0)	20(29.4)	94(23.4)
	51-55세	11(9.6)	2(3.2)	6(10.7)	3(5.9)	11(22.0)	18(26.5)	52(12.7)
	56세이상	6(5.3)	1(1.6)	4(7.1)	5(9.8)	11(22.0)	17(25.0)	44(11.0)
	계	114(100)	62(100)	56(100)	51(100)	50(100)	68(100)	401(100)
부인 연령	35세이하	19(16.7)	26(40.0)	7(12.5)	9(17.3)	4(8.0)	3(4.4)	68(16.8)
	36-40세	47(41.2)	23(35.4)	16(28.6)	12(23.1)	8(16.0)	6(8.4)	112(27.7)
	41-45세	22(19.3)	7(10.8)	19(33.9)	14(26.9)	12(24.0)	22(32.4)	96(23.7)
	46-50세	18(15.8)	7(10.8)	8(14.3)	11(21.2)	14(28.0)	18(26.5)	76(18.8)
	51-55세	5(4.4)	1(1.5)	4(7.1)	3(5.8)	6(12.0)	9(13.2)	28(6.9)
	56세이상	3(2.6)	1(1.5)	2(3.6)	3(5.8)	6(12.0)	10(14.7)	25(6.2)
	계	114(100)	65(100)	56(100)	52(100)	50(100)	68(100)	405(100)
가족 주기	미취학기	13(11.8)	19(30.6)	7(12.5)	8(15.7)	4(8.0)	1(1.5)	52(13.2)
	초등교육기	40(36.4)	24(38.7)	16(28.6)	11(21.6)	11(23.4)	11(16.2)	113(28.7)
	중등교육기	31(28.2)	12(19.4)	22(39.3)	18(35.3)	6(12.8)	15(22.1)	104(26.4)
	성인기 이후	26(23.6)	7(11.3)	11(19.6)	14(27.5)	26(55.3)	41(60.3)	125(31.7)
	계	110(100)	62(100)	56(100)	51(100)	47(100)	68(100)	394(100)
가족수	3인이하	28(24.3)	18(28.1)	18(32.1)	12(22.6)	16(32.0)	11(15.9)	103(25.3)
	4인가족	72(62.6)	35(54.7)	31(55.4)	38(71.7)	24(48.0)	39(55.1)	238(58.5)
	5인이상	15(13.1)	11(17.2)	7(12.5)	3(5.7)	10(20.0)	20(29.0)	66(16.2)
	계	115(100)	64(100)	56(100)	53(100)	50(100)	69(100)	407(100)
가장 학력	고졸이하	33(30.0)	15(24.6)	8(15.1)	6(12.0)	7(14.0)	5(7.4)	74(18.9)
	전문대졸	19(17.3)	9(14.8)	7(13.2)	6(12.0)	1(2.0)	3(4.4)	45(11.5)
	대졸이상	58(52.7)	37(60.6)	38(71.7)	38(77.0)	42(84.0)	60(88.2)	273(69.6)
	계	110(100)	61(100)	53(100)	50(100)	50(100)	68(100)	392(100)
부인 학력	고졸이하	75(67.6)	30(46.9)	20(37.8)	26(52.0)	19(38.0)	19(28.8)	189(47.9)
	전문대졸	14(12.6)	13(20.3)	4(7.5)	5(10.0)	4(8.0)	4(6.1)	45(11.2)
	대졸이상	22(19.8)	21(32.8)	29(54.7)	19(38.0)	27(54.0)	43(65.1)	161(40.9)
	계	111(100)	64(100)	53(100)	50(100)	50(100)	68(100)	394(100)
가장 직업	전문직	6(5.5)	7(11.7)	6(10.9)	4(7.8)	16(32.7)	15(23.1)	54(13.8)
	관리직	21(19.1)	12(20.0)	23(41.8)	20(39.2)	9(18.4)	28(43.1)	113(29.0)
	사무직	33(30.0)	21(35.0)	8(14.5)	7(13.7)	3(6.1)	3(4.6)	75(19.2)
	자영업	24(21.8)	10(16.7)	8(14.5)	12(23.5)	7(14.3)	11(16.9)	72(18.5)
	서비스·생산직	23(20.9)	8(13.4)	7(12.7)	5(9.8)	3(6.1)	0(0)	46(11.8)
	기타 무직	3(2.7)	2(3.4)	3(5.4)	3(5.9)	11(22.4)	8(12.3)	30(7.7)
	계	110(100)	60(100)	55(100)	51(100)	49(100)	65(100)	390(100)
부인 직업	전업주부	80(74.1)	45(81.8)	36(70.6)	33(75.0)	37(80.4)	45(72.6)	276(75.4)
	취업주부	28(25.9)	10(18.2)	15(29.4)	11(25.0)	9(19.6)	17(27.4)	90(24.6)
	계	108(100)	55(100)	51(100)	44(100)	46(100)	62(100)	366(100)
월평균 소득	200만원미만	23(20.4)	14(22.6)	5(8.9)	3(5.9)	3(6.1)	1(1.5)	49(12.3)
	200-300만원	52(46.0)	52(81.9)	14(25.0)	17(33.3)	18(36.7)	11(16.2)	138(34.6)
	300-400만원	28(24.8)	12(19.4)	15(26.8)	20(39.2)	12(24.5)	14(20.6)	101(25.3)
	400-500만원	5(4.4)	7(11.3)	10(17.9)	7(13.7)	9(18.4)	17(25.0)	55(13.8)
	500만원이상	5(4.4)	3(4.8)	12(21.4)	4(7.8)	7(14.3)	25(36.7)	56(14.0)
계	113(100)	62(100)	56(100)	50(100)	49(100)	68(100)	399(100)	

점 척도11)로 구성하여 원하는 아파트 실내이미지를 응답하도록 하는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요인분석12)을 통해 고유값(eigenvalue) 1이상인 9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표 2>.

<표 2> 실내이미지의 구성 요인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6	요인 7	요인 8	요인 9
강렬한	-.86	-.28	-.11	.00	-.07	-.04	.09	.10	.00
딱딱한	-.82	-.12	.01	-.17	-.31	-.01	.11	-.03	.02
시원한	.72	.01	.09	.17	.15	.37	.22	-.17	.25
자극적인	-.72	-.09	.19	-.12	-.08	-.46	.10	-.02	.20
생기있는	.68	.19	.21	.12	.24	.36	-.09	.22	-.25
편안한	.64	.30	-.34	.27	.19	.31	.12	.05	-.23
낭만적인	.07	.78	.09	.06	.40	-.23	.01	-.15	.15
독특한	.07	.74	.22	.29	.04	.19	.13	.02	-.31
진취적인	.22	.70	.19	.26	.08	.40	-.03	.16	-.14
산뜻한	.51	.70	-.02	.16	.02	.21	.28	.14	.09
차분한	.27	.68	-.14	.31	.15	.14	.00	-.26	.01
장식적인	-.07	.17	.92	.06	.05	.16	-.09	.14	-.03
화려한	-.15	.11	.91	-.06	.07	.04	-.11	-.02	.19
아기자기한	.19	-.25	.78	-.10	.28	.10	.23	-.04	-.13
여성스러운	-.07	.36	.63	.19	.50	-.06	.21	.17	.03
화사한	.28	.21	.58	-.14	.16	.21	-.08	.43	-.03
고전적인	.00	.11	-.09	.93	.15	.11	.01	.04	.02
전통적인	.10	.10	-.02	.93	.08	.13	.03	.09	.13
한국적인	.28	.38	-.03	.79	-.07	-.05	.02	.11	-.18
중후한	.29	.49	.16	.50	-.10	-.04	-.16	.25	.23
부드러운	.21	.19	.16	-.08	.77	.19	.10	.01	-.16
자연적인	.38	-.06	.33	.29	.66	.17	-.09	.15	-.03
아늑한	.52	.04	.09	-.03	.57	.54	-.15	.11	.07
우아한	.17	.30	.36	.25	.54	.22	-.40	.08	.09
전원적인	.32	.37	.00	.42	.51	-.14	.33	.17	-.01
실용적인	.35	.19	.10	.07	.03	.84	-.05	-.01	-.09
따뜻한	.30	.02	.31	.08	.32	.72	.03	-.11	-.08
소박한	.10	.10	-.16	.14	.21	-.17	.83	-.12	-.32
간소한	-.06	.16	.11	-.02	.05	.28	.82	-.21	.20
수수한	-.17	-.14	.04	-.09	-.24	-.22	.80	.26	-.06
도시적인	.08	-.07	.13	-.20	-.05	-.15	-.14	-.86	-.08
단순한	.04	.23	-.25	-.02	-.09	.09	.31	-.73	.31
고풍스러운	.13	.03	.43	.15	.05	-.23	-.03	.80	.05
격식적인	.05	.33	.25	.58	-.08	-.16	-.12	.02	.58
권위적인	-.45	-.24	.30	.02	-.25	-.43	.08	-.18	.52
서구적인	.48	.21	.31	-.20	-.10	.24	.26	.06	-.51
고유값	5.83	4.62	4.51	4.06	3.51	3.32	3.22	2.52	1.79
분산백분율	14.95	11.84	11.55	10.40	8.99	8.52	8.26	6.47	4.58
누적백분율	14.95	26.79	38.35	48.75	57.74	66.27	74.52	81.00	85.57

요인 1은 강렬하거나 딱딱하지 않고 시원하며 생기있는 이미지로 '생기있고 발랄한(i1)' 이미지로 명명하고, 요인 2는 낭만적이면서 독특하고, 진취적이며 산뜻한 이미지로서 '독특하고 세련된(i2)' 이미지로, 요인 3은 장식적이고 화려하며 아기자기한 이미지로 '여성스럽고 화려한(i3)' 이미지로, 요인 4는 고전적, 전통적, 한국적이면서 중후한 이미지로 '고전적이고 중후한(요인4)(i4)' 이미지로 각각 명명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요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형용사를 제외한 39개의 대표 형용사를 추출하였다<표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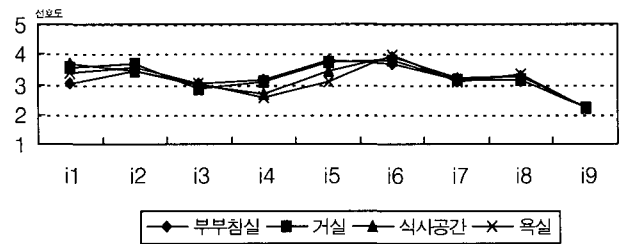
11)1-전혀 아니다, 2-아니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12)요인 추출모델은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법을 사용하고, 요인 회전은 직각회전방법(orthogonal method) 중 VARIMAX 방식을 사용하였다.

인 5는 '전원적이고 아늑한(i5)' 이미지, 요인 6은 '실용적인(요인6)' 이미지, 요인 7은 '소박하고 수수한(요인7)' 이미지로 각각 명명하였다. 요인 8은 도시적이고 단순하지 않으면서 고풍스러운 이미지이지만 선행연구(박혜숙·윤정숙, 2001)의 결과13)를 참고로 단순한 이미지를 부각시켜 '단순하고 절제된(i8)' 이미지로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인 9는 '격식적·권위적인(i9)' 이미지로 명명하였다. 이상에서 파악된 9가지의 실내이미지 구성 요인을 5점 척도14)로 구성하여 본조사에서는 각 공간에 대한 선호 실내이미지를 조사하였다.

(2) 각 공간별 실내이미지 선호

아파트 실내의 주요 공간인 부부침실, 거실, 식사공간, 욕실의 각 공간에 대한 거주자의 선호 이미지는 거주자 요구에 대응하는 각 공간의 실내디자인의 기초가 된다. 각 공간별로 선호하는 실내이미지는 <그림 2>와 같이 전반적으로 모든 공간에 대해 '실용적인' 이미지를 선호하는 정도가 가장 높았고(최소 3.7점, 최대 3.9점), 독특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선호하는 정도도 비교적 높았으며(최소 3.4점, 최대 3.7점), '권위적·격식적인' 이미지는 선호하는 정도가 가장 낮았다(모두 2.2점).

공간별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 이미지를 보면, 부부침실의 경우는 '전원적이고 아늑한' 이미지(M=3.8, S.D.=0.9)와 '실용적인' 이미지(M=3.7, S.D.=0.9)를 선호하였고, 거실의 경우는 '실용적인' 이미지(M=3.8, S.D.=0.8)와 '전원적이고 아늑한' 이미지(M=3.7, S.D.=0.9), '독특하고 세련된' 이미지(M=3.7, S.D.=0.9), '생기있고 발랄한' 이미지(M=3.5, S.D.=0.9)를 선호하였다. 식사공간의 이미지는 '실용적인' 이미지(M=3.9, S.D.=0.8)와 '생기있고 발랄한' 이미지(M=3.7, S.D.=0.9), '독특하고 세련된' 이미지(M=3.5, S.D.=0.9)를 선호하였고, 욕실공간의 경우는 '실용적인' 이미지(M=3.9, S.D.=0.9)와 '독특하고 세련된' 이미지(M=3.6, S.D.=1.0)를 선호하였다.



<그림 2> 아파트 실내 각 공간의 선호 이미지

이상을 종합하면, 아파트 거주자들은 아파트 공간의 실내이

13)박혜숙·윤정숙(2001)은 실내이미지를 '우아한 이미지', '산뜻한 이미지', '격식있는 이미지', '단순한 이미지', '편안한 이미지'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14)1-전혀 아니다, 2-아니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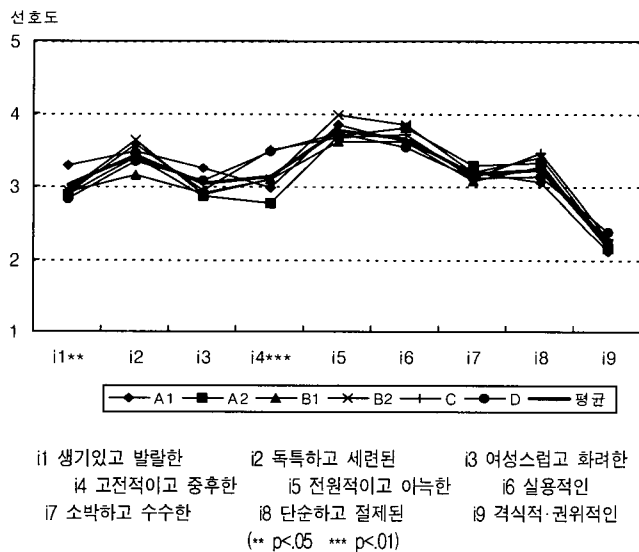
미지로써 전반적으로 실용성을 증시하는 반면, 권위적이고 격식적인 이미지는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공간에 따라서는 실용성 외에, 부부침실은 전원적이고 아늑한 이미지, 거실은 전원적이고 아늑하거나 독특하고 세련된 이미지, 식사공간은 생기있고 발랄한 이미지에 대한 선호가 두드러지고, 욕실은 독특하고 세련된 이미지에 대한 선호를 보임으로써, 각 공간의 기능과 의미에 따라 차별화된 실내이미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3) 각 공간별 아파트 평면유형에 따른 실내이미지 선호

각 공간에 대해 선호하는 실내이미지가 아파트 평면유형에 따라서는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평면유형에 따른 선호하는 실내이미지에 대한 분산분석과 사후검정(Scheffe's Analysis) 결과를 바탕으로 평면유형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① 부부침실

아파트 평면유형에 따른 부부침실의 선호 이미지는<그림 3> '생기있고 발랄한'과 '고전적이고 중후한' 이미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기있고 발랄한' 이미지를 선호하는 정도는 A1유형이 가장 높고(M=3.3, S.D.=0.9), 다음이 A2유형(M=2.9, S.D.=0.9), B1유형(2.9, S.D.=0.9), B2유형(M=3.0, S.D.=0.6), C유형(M=2.9, S.D.=0.9)의 순이었고, D유형(M=2.8, S.D.=0.8)의 선호도가 가장 낮았다. 부부침실의 '생기있고 발랄한' 이미지에 대한 선호는 아파트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낮아짐으로써, 가구특성상 가장과 주부의 연령 및 가족주기가 낮은 A1 유형의 부부침실 선호 이미지로 파악하였다. '고전적이고 중후한' 이미지는 반대로 A1유형(M=3.0, S.D.=1.0)과 A2유형(M=2.8, S.D.=1.0)의 평균이 가장 낮고, 다음이 B1유형(M=3.1, S.D.=1.0)과 B2유형(M=3.1, S.D.=1.0), 그리고 C유형(M=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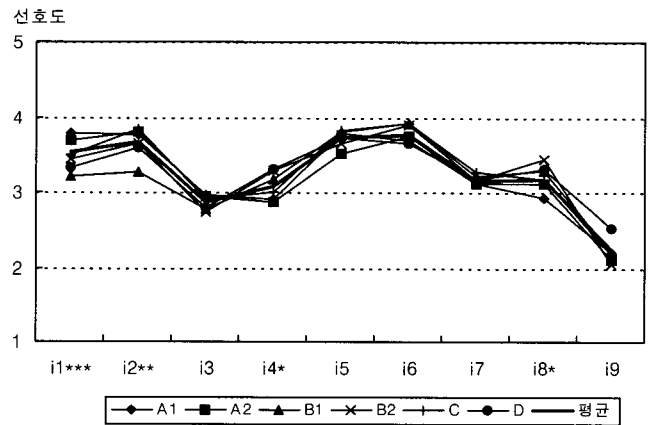


<그림 3> 아파트 평면유형에 따른 부부침실의 선호이미지

S.D.=0.9)과 D유형(M=3.5, S.D.=0.9)은 매우 높았다. 따라서 '고전적이고 중후한' 이미지는 가구특성상 가장과 주부의 연령 및 가족주기,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은 C와 D유형 거주자들의 부부침실 선호 이미지로 파악하였다.

② 거실

거실에 대한 선호 이미지를 아파트 평면유형에 따라 분석한 결과<그림 4>, '생기있고 발랄한', '독특하고 세련된', '고전적이고 중후한', '단순하고 절제된' 이미지의 경우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기있고 발랄한' 이미지는 A1유형(M=3.8, S.D.=0.9)과 A2유형(M=3.7, S.D.=0.9)의 선호가 가장 높고, '독특하고 세련된' 이미지는 A1유형(M=3.8, S.D.=1.0), A2유형(M=3.8, S.D.=1.0), C유형(M=3.8, S.D.=1.0)의 선호가 가장 높았다. B1유형은 '생기있고 발랄한(M=3.2, S.D.=1.0)', '독특하고 세련된(M=3.3, S.D.=1.1)' 이미지에 대한 선호가 다른 평면유형과 비교하여 특히 낮았으며, 같은 아파트 규모에서 상대적으로 거실의 면적이 좁은 B2 유형<sup>15)</sup>은 다른 유형과 비교하여 '단순하고 절제된' 이미지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다(M=3.4, S.D.=1.0).



i1 생기있고 발랄한    i2 독특하고 세련된    i3 여성스럽고 화려한  
 i4 고전적이고 중후한    i5 전원적이고 아늑한    i6 실용적인  
 i7 소박하고 수수한    i8 단순하고 절제된    i9 격식적·권위적인  
 (p<.01 \*\* p<.05 \*\*\* p<.01)

<그림 4> 아파트 평면유형에 따른 거실의 선호 이미지

이상에서 평면유형별 거실의 선호 이미지를 보면, 아파트 규

15) 조사대상 지역의 20개 아파트 단지의 단위주택평면을 분석한 결과, 주택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거실면적이 증가하였다. 한편, 같은 주택규모임에도 전면 2실형인 B1 유형과 비교하여 전면 3실형인 B2 유형의 거실면적이 협소한 것으로 분석되었

<표> 아파트 유형에 따른 각 실 면적의 평균      평균(S.D.), 단위:㎡

공간	유형	A <sub>1</sub>	A <sub>2</sub>	B <sub>1</sub>	B <sub>2</sub>	C	D	F-값
거실		12.3(0.8)	13.4(0.6)	18.3(0.8)	16.1(1.0)	16.6(1.3)	21.1(1.1)	139.7**
		a	a	c	b	b	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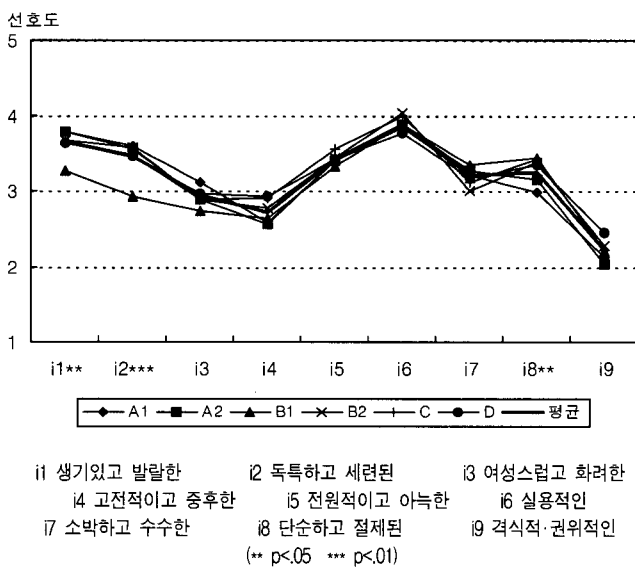
(\*\*\*p<.01)

모가 가장 적은 A 규모대역에서는 생기있고 발랄한 이미지와 독특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선호하였고, 같은 아파트 규모 내에서도 거실의 면적에 따라 선호 이미지에 차이를 보여 거실 면적이 좁을수록 '단순하고 절제된' 이미지를 통해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 ③ 식사공간

아파트 평면유형에 따른 식사공간의 이미지 선호를 분석한 결과<그림 5>, '생기있고 발랄한', '독특하고 세련된', '단순하고 절제된' 이미지에 대한 선호가 각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기있고 발랄한(A1: M=3.8, S.D.=1.0; A2: M=3.8, S.D.=0.9)' 이미지와 '독특하고 세련된(A1: M=3.6, S.D.=0.9; A2: M=3.6, S.D.=1.1)' 이미지에 대해서는 A1과 A2 유형의 선호가 높고, '단순하고 절제된' 이미지에 대해서는 A1 유형의 선호가 가장 낮은 반면(M=3.0, S.D.=0.9) C유형(M=3.5, S.D.=0.8)과 D유형(M=3.5, S.D.=0.8)의 선호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아늑하고 생기있는 식사공간의 실내이미지에 더하여, 가장과 주부의 연령 및 가족주기가 낮은 A1과 A2 유형의 거주자는 생기있고 발랄한 이미지와 독특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선호하고 가장과 주부의 연령 및 가족주기가 높은 C와 D 유형의 거주자는 단순하고 절제된 이미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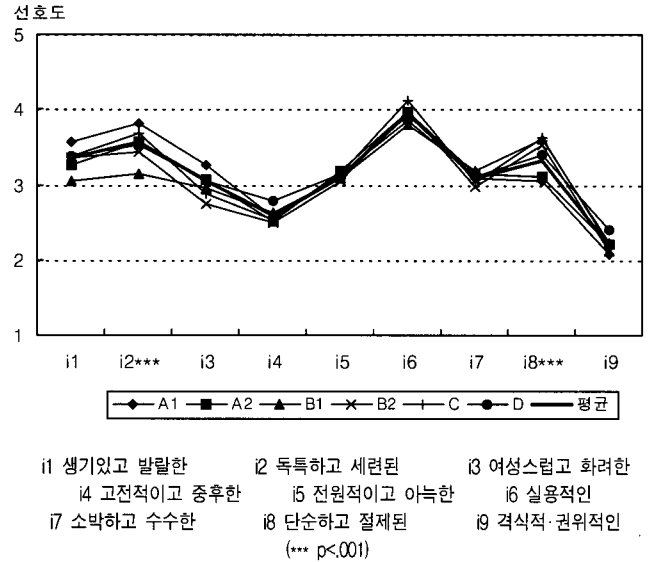
<그림 5> 아파트 평면유형에 따른 식사공간의 선호 이미지

### ④ 욕실

욕실에 대한 이미지 선호를 아파트 평면유형에 따라 분석한 결과<그림 6>, '독특하고 세련된' 이미지와 '단순하고 절제된' 이미지에 대한 선호가 각 평면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특하고 세련된' 이미지에 대한 선호는 A1유형(M=3.6, S.D.=1.0)이 가장 높고, B1유형(M=3.2, S.D.=1.2)이 가

장 낮았다. 또, '단순하고 절제된' 이미지 선호는 A1유형(M=3.0, S.D.=1.1)과 A2유형(M=3.1, S.D.=1.0)이 가장 낮았다.

따라서 A1유형의 거주자들은 '독특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B 규모대역 이상(B1, B2, C, D)의 거주자들은 '단순하고 절제된' 이미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림 6> 아파트 평면유형에 따른 욕실의 선호 이미지

### 4.3. 실내마감재에 대한 선호

아파트 실내디자인의 다양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실내 마감재에 대한 거주자 선호를 분석하였다. 실내마감재에 대한 거주자 선호는 문, 문틀, 몰딩, 붙박이 가구 등의 기본 마감재 및 각 공간의 바닥재에 대한 선호 특성으로 파악하였다.

#### (1) 아파트 실내공간의 기본 마감재에 대한 선호

기본 마감재에 대한 선호를 조사한 결과(표 3), 중간색(138가구, 35.0%), 밝은 색(125가구, 31.7%), 진한 색(78가구, 19.8%), 무늬목 마감재를 선호하는 가구가 페인트 마감(49가구, 12.4%) 또는 그 이외의 마감방식(4가구, 1.0%)을 선호하는 가구의 비율보다 높고, 무늬목 마감 방식 중에서는 중간색이나 밝은색의 마감을 진한색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파트 실내공간의 기본 마감재로는 자연적인 느낌을 주는 무늬목 마감을 전반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아파트 평면유형에 따라 분석해 보면, A1 유형과 A2 유형이 아파트 규모가 큰 B, C, D 유형보다 밝은 색과 중간색 무늬목을 선호하는 가구의 비율이 높고, C와 D 유형은 밝은 색 무늬목보다 중간색이나 진한 색 무늬목 마감을 선호하는 가구의 비율이 높았다. 또, B1 유형과 B2 유형은 같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B1 유형은 진한색 무늬목(10가구, 18.2%)보다는 중간색(19가구, 43.5%)과 밝은색(18가구, 32.7%)을 선호하는 가구의 비율이 높고, B2 유형은 중간색(20가구, 39.2%) 무늬목의 비율

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진한색(14가구, 27.5%)과 밝은 색(12가구, 23.5%) 무늬목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다.

따라서 아파트 규모에 따른 가구특성을 고려할 때, 가족 구성원의 연령과 가족주기가 낮은 A 규모대역에서는 밝은 색의 무늬목 마감재, 주택규모가 상대적으로 넓고 가족구성원의 연령 및 가족주기가 높은 C와 D 규모대역에서는 중간색과 진한색 무늬목 마감재 선호하는 가구의 비율이 높았다. 한편, 거주 가구특성의 분포가 다양한 B 규모대역은 다른 유형에 비하여 마감재에 선호가 다양하게 나타나 마감재의 선택기회를 보다 다양화하여야 할 것이다.

<표 3> 아파트 평면유형에 따른 아파트 실내 기본마감에 대한 선호

유형	가구수(%)						
	A <sub>1</sub>	A <sub>2</sub>	B <sub>1</sub>	B <sub>2</sub>	C	D	전체
페인트마감	14(12.7)	3(4.7)	8(14.5)	4(7.8)	9(20.0)	11(15.9)	49(12.4)
진한색 무늬목	15(13.6)	7(10.9)	10(18.2)	14(27.5)	13(28.9)	19(27.5)	78(19.8)
중간색 무늬목	32(29.1)	27(42.2)	19(43.5)	20(39.2)	14(31.1)	26(37.7)	138(35.0)
밝은색 무늬목	48(43.6)	27(42.2)	18(32.7)	12(23.5)	8(17.8)	2(17.4)	125(31.7)
기타	1(0.9)	0(0.0)	0(0.0)	1(2.0)	1(2.2)	1(1.4)	4(1.0)
계	110(100.0)	64(100.0)	55(100.0)	51(100.0)	45(100.0)	69(100.0)	394(100.0)

(2) 각 공간의 각 바닥 마감재에 대한 선호

각 공간의 바닥마감재는 각 공간의 기능과 의미에 따라 차이를 두어야 하므로, 바닥마감재에 대한 선호는 부부침실, 자녀실, 거실, 주방, 식사공간, 욕실, 현관, 발코니를 각각 구분하여 조사하였다<표 4>.

부부침실과 자녀실은 침실의 기능이 주가 되는 개인적 공간으로 사용자와 공간의 의미에 따라 선호 마감재에 차이가 있었다. 부부침실은 한지장판(282가구, 66.8%)의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나무·원목마루(90가구, 23.0%)의 비율이 높으며, 다른 마감재의 선택 비율은 매우 낮았다. 반면, 자녀실은 한지장판(148가구, 42.5%), 나무·원목마루(128가구, 36.8%)의 비율이 높고, 그 외에 합성수지류(58가구, 16.7%)를 선택한 가구도 있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아파트 평면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여 아파트의 모든 침실을 일괄적으로 동일한 마감재로 마감하기보다는 침실의 의미에 따라 거주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넓혀 줄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거실의 마감재에 대한 선호는 나무·원목마루를 선택한 가구가 총 348가구(87.9%)에 이르렀다. 평면유형에 따라 B1 유형은 합성수지를 선택한 가구의 비율이 다른 유형과 비교하여 높았다. 거실은 주택을 대표하는 공간일 뿐 아니라 실내디자인의 중심공간이므로, 거실의 마감재는 나무 또는 원목마루나 이와 같은 이미지의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거주자 선호를 충족시켜 주는 방안의 하나라고 본다.

주방과 식사공간의 마감재에 대한 선호는 조사대상 아파트 평면유형이 모두 주방과 식사공간이 통합되어 있는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두 공간의 마감재 선호에 있어 차이를 보였다. 식사공간은 나무·원목마루(242가구, 72.5%)를 선호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합성수지류(42가구, 12.8%)를 선택한 가구의 비율이 10%를 조금 넘는 반면, 주방의 마감재로는 나무·원목마루(231 가구, 64.3%)와 합성수지(48가구, 13.4%)뿐 아니라, 인조대리석(49가구, 13.0%)을 선택한 가구도 있었다. 따라서 식사공간과 주방은 가족 공동의 공간으로서 거실과 함께 나무·원목마루와 같은 자연스러운 이미지의 마감재에 대한 선호가 높고,

<표 4> 아파트 평면 유형에 따른 각 공간의 바닥 마감재에 대한 선호

가구수(%):중복응답허용

아파트 평면유형	각실 마감재	A <sub>1</sub>	A <sub>2</sub>	B <sub>1</sub>	B <sub>2</sub>	C	D	전체
		부부침실	한지장판	85(75.2)	43(68.3)	36(65.5)	27(52.9)	29(67.4)
부부침실	나무·원목마루	14(12.4)	16(25.4)	10(18.2)	20(39.2)	9(20.9)	21(31.3)	90(23.0)
	합성수지류	9(8.0)	3(4.8)	8(14.5)	4(7.8)	4(9.3)	4(6.0)	32(8.2)
	기타	6(5.3)	2(3.2)	2(3.6)	1(2.0)	1(2.3)	1(1.5)	13(3.3)
	자녀실	한지장판	43(46.7)	32(55.2)	22(44.9)	14(28.0)	17(42.5)	20(33.9)
자녀실	나무·원목마루	25(27.2)	19(32.8)	13(26.5)	27(54.0)	13(32.5)	31(52.5)	128(36.8)
	합성수지	21(22.8)	5(8.6)	10(20.4)	7(14.0)	8(20.0)	7(11.9)	58(16.7)
	기타	3(3.3)	2(3.4)	4(8.2)	2(4.0)	2(5.0)	1(1.7)	14(4.0)
거실	나무·원목마루	97(86.6)	52(81.3)	45(83.3)	46(90.2)	44(93.6)	64(94.1)	348(87.9)
	인조대리석	1(0.8)	1(1.6)	1(1.8)	0(0)	0(0)	1(1.5)	4(1.0)
	대리석	4(3.6)	0(0)	1(1.8)	2(3.9)	0(0)	1(1.5)	8(2.0)
	합성수지류	7(6.3)	6(9.4)	7(13.0)	1(2.0)	3(6.4)	1(1.5)	25(6.3)
	기타	4(3.6)	5(7.8)	1(1.8)	3(5.9)	0(0.0)	1(1.5)	14(6.6)
식사공간	나무·원목마루	50(58.8)	38(73.1)	33(70.2)	40(83.3)	30(75.0)	51(82.3)	242(72.5)
	인조대리석	8(9.4)	3(5.8)	5(10.6)	0(0.0)	3(7.5)	3(4.8)	22(6.6)
	대리석	8(9.4)	0(0.0)	4(8.5)	1(2.1)	0(0.0)	4(6.5)	17(5.1)
	합성수지류	14(16.5)	9(17.3)	6(12.8)	3(6.3)	7(17.5)	3(4.8)	42(12.6)
	기타	6(7.1)	2(3.8)	0(0.0)	6(12.5)	0(0.0)	1(1.6)	1(3)
주방	나무·원목마루	56(58.9)	32(58.2)	32(65.3)	36(69.2)	26(59.1)	49(76.6)	231(64.3)
	인조대리석	17(17.9)	9(16.4)	7(14.3)	5(9.6)	6(13.6)	5(7.8)	49(13.6)
	대리석	9(9.5)	2(3.6)	2(4.1)	5(9.6)	3(6.8)	6(9.4)	27(7.5)
	합성수지류	11(11.6)	10(18.2)	8(16.3)	6(11.5)	9(20.5)	4(6.3)	48(13.4)
	기타	6(6.3)	2(3.6)	1(2.0)	4(7.7)	1(2.3)	2(3.1)	16(4.4)
현관	인조대리석	34(32.4)	13(22.4)	18(39.1)	11(22.0)	12(26.7)	20(29.9)	108(29.1)
	대리석	38(36.2)	20(34.5)	13(28.3)	26(52.0)	18(40.0)	29(43.3)	144(38.8)
	타일	29(27.6)	22(37.9)	12(26.1)	17(34.0)	13(28.9)	17(25.4)	110(29.6)
	기타	9(8.6)	5(8.6)	3(6.5)	3(6.0)	3(6.6)	4(6.0)	27(7.3)
욕실	인조대리석	22(21.8)	9(15.8)	9(28.8)	3(5.8)	11(24.4)	9(15.3)	63(17.4)
	대리석	24(23.8)	12(21.1)	8(16.7)	7(13.5)	9(20.0)	11(18.6)	71(19.6)
	타일	61(60.4)	38(66.7)	29(60.4)	44(84.6)	27(60.0)	39(65.1)	238(65.7)
	기타	4(4.0)	2(3.5)	3(6.3)	4(7.7)	3(6.7)	3(5.1)	20(5.5)
발코니	나무·원목마루	17(17.0)	15(25.0)	8(16.7)	9(18.0)	7(17.3)	5(7.5)	61(16.6)
	인조대리석	17(17.0)	5(8.3)	11(22.9)	9(22.9)	9(18.0)	7(16.3)	72(19.6)
	대리석	19(19.0)	8(13.3)	7(14.6)	10(20.0)	9(20.9)	14(20.9)	67(18.2)
	합성수지류	13(13.0)	3(5.0)	1(2.1)	3(6.0)	2(4.7)	0(0.0)	22(6.0)
	타일	39(39.0)	31(51.7)	22(45.8)	23(46.0)	14(32.6)	32(47.8)	161(43.8)
	기타	3(3.0)	0(0.0)	1(2.1)	0(0.0)	0(0.0)	0(0.0)	4(1.1)



주방은 작업공간의 기능을 가짐으로써 인조대리석과 같은 딱딱하고 차가운 분위기의 마감재 선호도 있는 것으로 본다.

현관의 마감재로는 인조대리석(108가구, 29.1%), 대리석(144가구, 38.8%), 타일(100가구, 29.6%)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다. 욕실도 마찬가지로 인조대리석(63가구, 17.4%), 대리석(71가구, 19.6%), 타일(238가구, 65.7%) 등 현관과 동일한 마감재를 선호하였으나, 선호 비율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현관의 경우 인조대리석과 타일보다는 대리석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마감재를 선호하고 있으며, 욕실의 경우는 이와 반대로 인조대리석이나 대리석보다는 타일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아 실용성 중심으로 마감재를 선호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발코니 마감재로는 다른 공간들과 비교하여 다양한 종류의 마감재를 선호하여, 타일(161가구, 43.8%)을 선호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대리석(22가구, 18.2%)과 나무·원목마루(61가구, 16.6%)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발코니가 다양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선행연구결과(조성희·박수빈, 1998)와 부합되는 것으로 발코니 마감재의 선택 기회 또한 다양하게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 5. 결론

본 연구는 아파트 실내디자인의 다양화를 위한 거주자 선호를 구체적·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조사대상 아파트를 규모와 공간구성방식에 따라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거주자의 선호를 실내이미지에 대한 선호와 실내마감재에 대한 선호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아파트 실내디자인의 다양화를 위한 거주자 선호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아파트 실내이미지 구성 요인은 ‘생기있고 발랄한’, ‘독특하고 세련된’, ‘여성스럽고 화려한’, ‘고전적이고 중후한’, ‘전원적이고 아늑한’, ‘실용적인’, ‘소박하고 수수한’, ‘단순하고 절제된’, ‘격식적·권위적인’의 9가지 요인으로 파악하였다.

둘째, 아파트의 실내이미지로서 실용성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여기에 실내 각 공간의 기능과 의미에 따라 부부침실은 전원적이고 아늑한 이미지, 거실은 전원적이고 독특한 이미지, 식사공간은 생기있고 발랄한 이미지, 욕실은 독특하고 세련된 이미지가 강조되어야 한다.

셋째, 동일한 공간도 주택규모와 공간구성에 따라 서로 다른 실내이미지로 계획되어야 한다. 부부침실의 경우 가족구성원의 연령과 가족주기가 낮은 A1 유형은 생기있고 발랄한 이미지를, 가족구성원의 연령과 가족주기가 높은 C와 D 유형은 고전적이고 중후한 이미지를 부가한다. 거실은 주택규모에 따라 A 규모대역(전용면적 60㎡)은 생기있고 독특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다양한 디자인을 제공하고, B 규모대역(전용면적 85㎡)은 거실의 면적이 좁아질 경우 단순하고 절제된 이미지를 더해 준

다. 식사공간은 가족구성원의 연령과 가족주기가 낮은 A 규모대역은 생기있고 독특한 이미지를, 가족구성원의 연령과 가족주기가 높은 C(전용면적 102㎡)와 D 규모대역(전용면적 135㎡)은 단순하고 절제된 이미지를 부가한다. 마지막으로 욕실은 아파트 면적이 가장 작은 A 규모대역의 경우 독특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부가한다.

넷째, 전반적인 실내마감재는 A 규모대역은 밝은 색의 무늬목을 중심으로, C와 D 규모대역은 중간색과 진한 색 무늬목을 중심으로 마감재에 대한 선택기회를 증가시켜 주택규모에 따라 다양화한다. 각 공간의 바닥 마감재는 전원적이고 아늑한 이미지가 강조되는 부부침실은 한지나 나무·원목마루를, 이 외의 방은 한지, 나무·원목마루의 합성수지류 등 다양한 소재를 제공한다. 가족공동공간인 거실, 식사공간, 주방은 거실과 식사공간의 아늑하고 생기있는 이미지를 강조한 나무·원목마루뿐 아니라 식사공간과 주방의 기능을 고려한 합성수지 또는 인조대리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거주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한다. 현관과 욕실은 대리석, 인조대리석, 타일을 제공하되 현관은 대리석을 중심으로, 욕실은 타일을 중심으로 디자인 및 품질을 다양화한다.

이상의 결과는 거주자의 선호에 바탕을 두고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거주자의 주거환경 만족도 및 아파트 주거환경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1. 국토개발연구원, 80년대 주택정책의 방향, 1979
2. 김미희·문화경, 도시여성의 특성에 따른 실내디자인 이미지 선호성향,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6호, 2001, pp. 11-18.
3. 김선희, 아파트 마감방식 다양화를 위한 실내디자인 태도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4. 김수암 외, 집합주택 단위평면유형의 고경화 현상에 관한 연구(I), 대한건축학회논문집 8(4), 1992
5. 박수빈, 아파트 거주가구의 주요구 모델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6. 박수빈, 아파트 공간구성유형에 따른 거주자 공간사용행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8(11), 2002, pp.53-62.
7. 박영순 외, 도시 아파트 거주자의 주생활양식과 실내분위기 선호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5(1), 1994, pp.17-27.
8. 박용환, 집합주택 주호공간의 가변성에 관한 연구(1)-가변성의 요구와 그 요인의 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3), 1986. 6.
9. 박혜숙·윤정숙, 생활양식에 따른 실내디자인 선호유형,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7호, 2000, pp.64-75.
10. 이연숙·홍미혜, 실내이미지 선호 측정 시각적 도구에 대한 실증적 검증,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16호, 1998, pp.3-9
11. 조성희·박수빈, 주택규모에 따른 아파트 평면계획의 다양화를 위한 거주자 주요구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4(11), 1998, pp.153-164
12. 통계청, 한국인의 사회지표, 1997, 2001
13. 한영호 외,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실내디자인 선호 특성에 관한 연구-디자인 스타일 및 색 선호를 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33호, 2002, pp.54-61.
14. 服部峯生 外, 住要求から見た獨立住宅類型化に関する研究, 住宅建築研究所, 新住宅普及會, 1979, pp.223-247

<접수 : 2003. 4. 28>